

# 안전·수익성 중심 사업구조 혁신... 올 2.2만여 가구 공급

## 건설사 경영전략

### ① 롯데건설 (끝)

조직 혁신 통해 지속성장 강화  
전사적인 원가 관리체제 시행  
안전사고 예방은 근원적 책무  
공중 다변화로 해외사업 확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사장.

롯데건설은 올해 약 2만2593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31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올해 광명2R, 마곡MICE 복합단지, 천안청당, 서울 청량리7 등에서 아파트 약 2만2539가구를 공급한다. 월별 상세 계획은 미정이며 변경 가능성은 있다는 게 롯데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 ◆올해 2만2593가구 공급 계획

롯데건설은 지난해 분양목표로 내세운 1만9847가구 중 1만7019가구를 공급하며 85.8%의 준수한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2015년 역대 최대 신규수주 실적인 2조

5743억원을 갈아치우며 총 2조6326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최대어 중 하나로 손꼽히던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얻어낸 게 결정적이었다. 롯데건설은 갈현1구역을 수주하며 상반기에 도시정비사업에서 1조5887억원의 수주 실적을 나타내며 '1조클럽'에 일찌감치 가입했다.

월별로는 ▲1월 울산 중구B-05구역 재개발(1602억) ▲3월 부산 범일2구역 재개발(5030억) ▲5월 갈현1구역 재개발(9255억) ▲8월 대구 앞산점보 재개발(1971억원) ▲8월 대전 가오동2구역 재건축(2016억원) ▲10월 대구 명원지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씨' 투시도.

/롯데건설

구 재개발(1813억) ▲10월 이촌현대 리모델링(2947억) ▲10월 대구 효목1동 6구역 재건축(1691억) 등이다.

롯데건설은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2020년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지난 2019년에 이어 8위를 유지했다.

#### ◆올 키워드, 안전·지속성장

롯데건설은 올해 슬로건으로 조직 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강화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2021년 신년사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 대표

는 "올해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전사적인 원가 관리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그는 "고객의 신뢰를 담보하는 품질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은 회사의 근원적 책무"라며 "품질 혁신과 안전 경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치의 양보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수익성이 우수한 그룹 연계 복합개발사업과 실버주택과 같은 신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사강고, 대심도 터널 등 국내외 고난도 공공토목분야의 입찰에 두루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시공 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하고, 플랜트 사업에서도 화공 다운스트림 전 분야·LNG 화력발전소 등 수행 경험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프로젝트 수행능력 고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해외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 몇 년간 다져온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 같은 거점 시장에서 우리의 성공 경험을 확대해 나가고, 현지 밀착형 사업 구조와 우량한 디벨로퍼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신규사업의 안정적 확대와 공중다변화를 통해 해외사업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 조직 문화를 만들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2차전지 수요 ↑... 전기차 배터리 부문 흑자 예고

### metro 관심종목

#### 삼성SDI

2분기 중대형전지 흑자 계기  
하반기 가파른 실적개선 예상  
증권가 목표가 최고 105만원

2차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 삼성SDI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문의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증권업계는 삼성SDI의 목표주가를 최대 105만원까지 내놓았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오는 2022년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 50만대 대비 2배 증가한 100만대로 예상되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 확산 정책에 강력한 힘을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9일 전 거래일 대비 3만3000원(4.3%) 하락한 73만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3%대 급락함에 따라 주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지난해 말 증가(62만8000원)와 비교했을 때 16.87%나 상승한 것이다.

#### 〈삼성SDI 증권사별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하나금융투자	105만원
현대차·IBK투자증권	100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	99만원
NH투자증권	97만원
유진투자증권	95만원
신한금융·하이투자증권	90만원
한화투자증권	86만원
키움·대신증권	85만원

삼성SDI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1조2948억원, 영업이익은 67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 45.2%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조2514억원, 영업이익 2462억원으로 시장 전망치(영업이익 3280억원)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 삼성SDI의 배터리를 납품받은 BMW와 포드가 최근 리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경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전지 흑자 전환이 화제 리콜에 따른 충당금 설정으로 지연됐다는 점이 아쉽다"며 "하지만 자동차전지 매출이 분기 첫 1조원을 넘어서 향후 실적 개선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하나금융투자는 105만원으로 삼성SDI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기존 목표주가 77만원에서 36.4%나 상향 조정했다. 이어 현대차투자증권·IBK투자증권 100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 99만원, NH투자증권 97만원, 유진투자증권 95만원, 신한금융투자·하이투자증권 90만원, 한화투자증권 86만원, 키움증권·대신증권 85만원 등의 순이다.

증권업계는 올해 2분기부터 삼성SDI의 가파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예상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1분기는 소형전지와 전자재료가 비수기에 따른 수익성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2분기 중대형전지 흑자 전환을 계기로 하반기에 가파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삼성SDI는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부문 시장 내 점유율 1위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분양

DL이앤씨, 사이버 전시관 개관  
84㎡ 862가구, 98㎡ 547가구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만 운영된다. 단지는 84·98㎡, 1409가구로 면적별 세대수는 ▲84㎡862가구 ▲98㎡547가구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가 들어서는 영종국제도시는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제2경인고속도로), 공항철도 운서역 및 영종역 등의 교통망을 통해 서울 서부권과의 접근성을 확보한 수도권 신도시다. 여기에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4년간 숙원 사업이었던 제3연륙교(영종~청라, 2025년 완공 예정)가 착공된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인근 하늘대로를 통해 제3연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단지이며, 이를 통해 스타필드 청라, 코스트코 청라, 청라의료 복합타운 등 청라국제도시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단지는 제3연륙교를 통

해 영종국제도시에서 향상된 교통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인접한 청라국제도시와 함께 수혜가 기대된다.

단지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새로운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가 영종 내 첫 적용된다.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 시설로 영종국제도시 분양 단지 가운데 최초로 단지 내 실내체육관이 갖춰지며 피트니스 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가족운동시설(탁구) 등도 마련된다. 특히 자녀가 있는 세대를 위한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맘스 스테이션, 작은 도서관(라운지카페) 등도 마련된다. 특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3.3㎡당 평균 1050만원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되며 전 세대에는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3년이라는 전매제한을 적용 받음에도 공사기간은 이보다 짧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등기 이후 거래도 가능하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오는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의 진행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 미래에셋대우, 업계 최초 영업이익 1조 달성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020 회계연도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조1047억원으로 업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1284억원, 8183억원으로 전년보다 26%, 23% 늘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31일 "해외 사업부문,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트레이딩 등 전 영업부문에서 고른

실적을 보이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미래에셋대우는 본격적인 마니무브시대를 맞이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수익구조를 공고히 하고, 질적 성장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IB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염재인 기자 yjin208@